



주민쉼터로 가꾸면서 좀 더 살기 좋은 장수마을을~

밤이면 쌀쌀한 바람이 부는 것을 보니 어느덧 가을입니다. 이번 소식지에는 동네 쓰레기장을 주민쉼터로 만드는 이야기(2면), 장수마을 마을기업 “동네목수”에서 총무로 일하는 배씨 아저씨의 이야기(5면), 내가 사는 집과 골목에 대한 어린이 친구의 이야기(6면), 빈집을 대학생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8면) 등 읽을거리, 볼거리가 많습니다. 꼼꼼히 읽어주시고, 더 나은 장수마을을 함께 만들기 위해 현재 진행 중인 장수마을 주거실태조사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세요. 우리 모두 어느 때보다도 풍성한 한가위를 보내길 바라며, 연휴 기간 가족과 함께 소식지도 보시고 이야기도 많이 나누시는 행복한 시간되길 기원합니다.

가을처럼 풍성한 장수마을 벼룩시장(녹색장터), 9월24일(토) 2시, 분수대 옆 공터에서

추석 연휴를 고려하여 일정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주민쉼터로 조성하고 있는 주차장 인근 분수대 옆 공터에서 진행합니다. 9월 벼룩시장에서는 물품과 먹거리 나누기 외에도 특별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6월부터 진행해온 어린이 사진교실에서 찍은 사진 전시회를 함께 할 예정입니다. 우리 동네 어린이들의 작품을 보러 와주시고, 많이 격려해주세요. 참여프로그램으로 일상에서 냄새 제거 등 여러 가지로 활용되는 쌀뜨물 이엠(EM) 만들기도 합니다. (☎ 문의: 대안개발연구모임 신희철 010-8728-7418)

『 장수마을 이야기』 이번호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2	[경과보고] 동네 쓰레기장의 주민쉼터 변신
3	[함께해요] 집수리상담은 “동네목수”에게
4	[알립니다] 주민 인터뷰 영상 전시
5	[동네목수이야기] 동네목수 총무 표류기
6	[장수사랑방] 내가 사는 집과 골목 이야기
7	[장수사랑방] 내가 사는 집과 골목 이야기
8	[요모조모따져보기(1)] 빈집활용방안:대학생임대주택
9	[요모조모따져보기(2)] 재개발예정구역 해제해야
10	[집수리101] 보조키 달기 편
11	[집수리101] 보조키 달기 편
12	[이달의 퀴즈] / [소식지 참여방법]



풍요롭고 여유로운 마음으로 감사하는 일이 많은 날을 소망합니다.



동네 쓰레기장이 주민쉼터로 변신합니다.

한성경로당 올라가는 길에 위치한 주차장 옆 동네 쓰레기장이 주민 쉼터로 변신할 예정입니다. 주민쉼터 조성은 10월경에 진행될 예정이고, 지금은 어떻게 이곳을 사용할지 디자인 작업을 진행하고 있지요. 주민쉼터 디자인 작업은 이곳 주변 주민들과 장수마을 주민번영회, 대안개발연구모임이 함께 진행하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왜 주민쉼터인가 궁금하시죠?

최근에 성북구청과 동사무소가 이곳 쓰레기장을 없애고 주차장을 만들려고 했었지요. 야채차가 오기도 하고, 차가 회차하기도 하고, 잠깐 그늘에서 쉬기도 하고 여러 용도로 이용되는 이곳이 주민편의 공간이기 때문에 주차장을 설치하지 말라고 강력히 반발했어요. 말이나온 김에 몇몇 주민들이 모여 옹벽 밑에 수년간 방치되어온 건축폐기물이 쌓여있던 자리에 화단까지 만들었어요. 동사무소에서는 주민들의 요구와 노력을 인정하여 일단 주차장 설치를 유보하였죠.

그러나 이곳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면 언제 다시 쓰레기 문제나 주차장 문제가 불거질지 모르기 때문에 이곳을 주민쉼터로 조성하자는 의견을 몇몇 주민들이 제안하셨어요. 그래서 몇 차례 주민간담회를 진행했고, 주민들의 의견을 토대로 쉼터 디자인작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주민쉼터 조성에 필요한 비용은 성북구청 도시디자인과에서 일부 지원받을 예정입니다. 우리가 직접 만들기도 하고요.

이렇게 구청과 동사무소가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지원도 하게 된 것은 주민들이 말로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스스로 화단을 만들고 장소를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줬기 때문이에요. 주민들의 노력과 실천을 인정하고 신뢰하게 된 거지요. 누구라도 먼저 노력하고 실천하는 주민들의 요구를 우선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더 많이 지원하게 되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요. 이것이 바로 주민참여의 힘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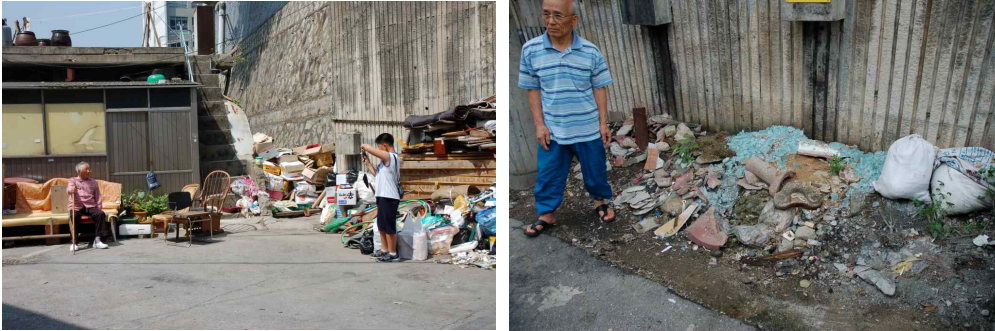
주민들이 화단을 조성하는 모습(8/13)



쉼터 디자인 의견을 나누는 모습(8/20)



경과보고



쓰레기장에 화단을 조성하기 전과 후의 모습, 이렇게 달라졌어요. ^^



함께해요

집수리 상담, 맞춤가구 주문은 “동네목수”에게!!!

장수마을 마을기업이 “동네목수”라는 이름으로 정식 사업자등록을 했어요.

“동네목수”는 집수리와 가구제작을 전문으로 하면서 마을의 이런저런 불편한 점들도 함께 고쳐가는 마을만들기 회사입니다. 가을에는 빈집을 고쳐서 주민카페도 만들고, 골목에 소박한 주민편의시설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아주 다양한 내용으로 집수리 요청이 들어오고 있어요. 솔직히 “동네목수” 역량으로는 어려운 내용도 있어요. 하지만 “동네목수”가 직접 하기 어려운 일은 협력업체들을 통해서라도 적절한 해결 방법을 찾아서 안내하려고 해요. 그러니 집수리가 필요하신 분은 주저하지 마시고 일단 “동네목수”에 상담을 요청하세요. ^^

“동네목수”는 맞춤가구도 제작합니다. 물론 대량으로 생산하는 시중 기성제품보다 싸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좁거나 반듯하지 않게 생겨서 기성제품을 놓기 어려운 집이라면 집 모양에 맞춰서 제작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 가구 때문에 고민이신 분도 “동네목수”와 상담하세요. ^^

(☎ 문의: 박학룡 010-7178-6744, 배정학 010-6570-6764)



함께해요



처마 썬라이트 시공 사례



맞춤가구 제작 사례

덧붙여 안타깝고 죄송한 소식을 하나 전해드립니다. 올해는 장애인, 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공익형 집수리사업이 어려울 것 같아요. 집수리 요청을 하신 취약계층 주민들께 공익형 집수리사업이 가능한지 알아볼 테니 기다려달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올해는 예산문제로 지원 대상을 줄였고, 벌써 다 마감이 돼버렸답니다. 공익형 집수리사업은 내년을 기약할 수밖에 없네요. 마을기업 “동네목수” 자체 예산으로도 조금씩은 취약계층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사업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많은 지원을 해드리지는 못하고 있어요. 혹시나 저렴하게 집수리를 할 수 있을까 기대하셨을 텐데, 기회를 드리지 못해 안타깝고 죄송합니다. 취약계층도 함께 행복한 장수마을을 위해 “동네목수”가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



알립니다

2011 서울변방연극제에서 장수마을 어르신들의 인터뷰가 영상 전시됩니다

- 전시 일정 - 9월21일 (수) 오후5시~8시
- 전시 제목 - "1분간의 무서운 이야기"
- 전시 장소 - 혜화동 1번지 소극장
(혜화로터리 방향, SK주유소와 혜화파출소 사이 골목 안으로 들어서시면 왼편에 입구가 있습니다.)
- 전시 작가 - 이현정 (독립다큐멘터리 감독)



변방연극제는 매년 가을 대학로를 중심으로 개최되는 연극제입니다. 변방연극제에서는 연극뿐만 아니라 전시, 춤, 영화 상영, 음악 공연 등 다양한 공연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인터뷰에 응해 주신 분들과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오셔서 전시 관람해 주세요. ^^



장수마을 마을기업 동네목수 총무 표류기



“동네목수” 배(정학)씨라
불러주세요~

요즘 장수마을에는 생경한 풍경 하나가 있습니다. 어느날 부턴가 얼굴 예쁘게 생긴 남자(박학룡씨)보다 마을 안에서 못 보던 시커먼 두 명의 남자가 연장과 자재를 리어카로 가득 싣고 마을 경사진 골목길을 힘들게 곡예운전을 하며 다니는 것을 종종 목격하셨을 겁니다. 잠시 바깥으로 나와 어둑해진 하늘을 쳐다보며 집으로 길을 재촉하시는 동네 어르신들이 뭔지 모르셔도 동네 골목길 안에서 우리가 똑딱 똑딱 거리는 모습을 보시고 “고생하네” 하고 지나가실 때마다 사람의 영혼은 골목길과 집에서 숨을 쉬고 있다는 것을 새삼 느낍니다.

재개발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에서 불편한 집 내부를 고쳐가면서 살아가고자 만들어진 장수마을 마을기업에서 일을 한지 이제 석 달이 다 되어 갑니다. 처음에는 장수마을 대안개발 모임을 알게 되고 마을학교에서 목공교실을 진행할 계획이 있다고 하여 ‘나도 참여해서 목공이나 배워볼까’ 했던 건데, 어쩌다 마을기업 총무까지 맡게 됐습니다. 워낙 일하는 게 서툴러서 몸이 피곤하다는 말도 입 밖으로 나오기도 민망한 지경입니다. 아무튼 제게는 놀라운 일이 생긴 것입니다.

아직 시작한지 얼마 안 되어 장수마을 마을기업 “동네목수” 이름으로 동네 집수리를 생각만큼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도 동네 골목길을 왔다 갔다 하며 동네 어르신들 중에 편하게 인사를 건넬 수 있게 된 분들이 많아진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여서 세월을 만든다는 말을. 장수마을 대안개발연구모임에 함께 하는 분들이 지난 3년 동안 장수마을 안에서 주민들과 만나고 함께 모여 세월을 만들었습니다. 그 신뢰 관계의 바탕 위에서 이제 갓 시작한 장수마을 마을기업인 “동네목수”가 더 오랜 세월 주민들과 함께 만나고 모여서 장수마을에 절박한 집수리의 필요성과 실용성을 결합시켜 가는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발전해 갔으면 합니다. 근데 제가 잘해야 하는데^^

하루빨리 장수마을이 불편한 주거환경으로 인해 사는 분들에게 서러운 삶의 관계가 아니라 인간의 물리적 힘이 따라 가지 못하는 삶의 추억을 섬세하게 보여 줄 수 있는 따뜻한 공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간절합니다. 그래서 항상 주거환경이 낡으면 다 부수고 없애던 재개발을 해왔던 방식에서 벗어나 다른 방식을 취하는 게 그게 옳은 것임을 장수마을 주민 분들이 언젠가 얘기 했으면 합니다.

지금도 장수마을 마을기업 동네목수의 사무실로 쓰고 있는 경로당 2층 칠판에 빼곡하게 적혀 있는 마을 주민들의 집수리 요청 목록을 볼 때마다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그런 죄송한 마음을 갖지 않는 장수마을 마을기업 “동네목수” 총무가 될 수 있게 힘을 주셨으면 해요. 제가 동네에서 보이면 “어이 배씨~”하고 자주 불러 주세요. 그리고 여유 되시면 리어카를 끌고 가는 저희를 보시면 막걸리도 한잔 주시고요.



장수사랑방 : 8월에 진행한 어린이 사진교실 이야기

내가 사는 집과 골목 이야기

장마와 방학기간 휴가 일정으로 8월 장수마을 어린이 사진교실은 6일과 27일에 6회, 7회 진행했습니다. 8월에는 진솔이가 완쾌되어 동생 예리와 함께 다시 사진교실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항상 빠지지 않고 계속 출석한 정현, 정민 형제, 그리고 베프(친한 친구)인 소희와 수현이도 함께 하였습니다. 8월 6일에는 '내가 사는 집과 골목'에 대한 사진 촬영을 했습니다. 이날은 진솔, 예리, 정현, 정민 친구들이 나왔었는데 공교롭게 같은 골목에 사는 친구들이라 한 팀(진솔, 예리)은 골목 위쪽부터 내려오면서 찍고, 다른 한 팀(정현, 정민)은 골목 아래쪽부터 올라가면서 찍었습니다.



예리.jpg ©



정민.jpg ©



정현.jpg ©



8월 27일 친구들이 직접 찍은 사진을 보고 기록노트에 글쓰기 하는 모습



장수사랑방 : 8월에 진행한 어린이 사진교실 이야기

아직 사진교실 친구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집과 골목을 모두 찍은 것은 아니에요. 우선 이번 소식지에는 지난 8월 27일 글쓰기 시간에 쓴 진솔 친구의 글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다른 친구들의 글과 사진은 다가오는 9월 24일에 열리는 마을 베틀시장에서 사진 전시 형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주민 여러분! 어린이 친구들이 찍은 사진과 글 많이 기대해주세요.

내가 사는 집과 골목 이야기

- 이진솔

바로 앞에 보이는 집이 우리 집이다. 사진을 찍었던 당시에는 낮 2시였고 날씨가 매우 좋았다. 그래서 엄마가 건조대에 이불을 넣은 채로 대문밖에 내놓은 것 같다. 왼쪽 계단 위로 올라가면 보이듯이 좀 짧은 골목이 있는데 그 골목 왼쪽엔 작은 집이 있다. 우리집 주인인 아빠와 윗집 주인아저씨는 예전부터(약 20-30년) 한동네 옆집 사이여서 매우 친하다.

다시 앞에 보이는 우리집 이야기를 해보자. 오른쪽에 보이는 우리집 담은 원래 지금보다 좀 낮았다. 그런데 우리 동네에 도둑들이 좀 있고, 또 우리 집에 도둑이 든 적이 있기 때문에, 담을 좀 더 쌓아 도둑이 못 들어오도록 했다. 그리고 지금은 잘 보이지 않지만 대문도 원래는 그냥 열쇠, 키였다. 근데 도둑이 한 번 드니까 대문도 그냥 열쇠로 하지 않고, 비밀번호를 눌러 문을 여는 방식으로 바꿨다. 내가 이 글을 쓰게 된 계기는 뭐 딱히 없고, 우리집이고 다시 사진을 찍어 보니까 평소랑 다른 것이 바로 차이가 나서 신기해 이 사진을 찍었다. 휴~ 이제 더 이상 글을 못 쓰겠다. 너무 힘들어서...



진솔.jpg ©



요모조모 따져보기(1) - 빈집활용방안 : 서울시 대학생 주택 확대 공급방안

빈집을 활용하자! : 서울시 대학생 주택 확대 공급방안에 대해 알아봅시다

1. <서울시 대학생 주택 확대 공급방안>의 주요 내용¹⁾

지난 8월 서울시는 내년부터 대학생을 위한 주택을 매년 900개 방 이상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내년에는 총 515호, 1,330개 방을 공급하고, 2012년 이후에도 매년 450호 900개 방 이상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겠다고 합니다. 뉴타운 사업 등으로 저렴주택이 계속 철거되면서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임대료 상승으로 지방에서 올라온 대학생들은 학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서울시의 발표내용은 임대료 상승으로 인해 하숙이나 자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생에 대해 주거지원을 실시하겠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크게 6가지로 다음과 같습니다.

- ① 기존 다가구 주택 매입 후 수선 공급하는 '유스하우징' 확대, 매년 150호 300방 공급
- ② 노후 다가구 주택 재건축해 매년 50호 100방 공급
- ③ 기존 시·구유지 활용 신축해 매년 150호 300방 공급
- ④ 노후 공가 개보수 후 대학생 임대주택으로 운영, 매년 100호 200방 공급
- ⑤ 뉴타운·재개발 예정구역 내 임대주택, 부분임대아파트 대학생 주택 공급
- ⑥ 뉴타운·재개발구역 내 기숙사 부지 확보, 대학의 매입방안 마련

서울시에 따르면 대학생 주택 입주대상은 서울시에 소재한 대학교(전문대학 포함)를 재학 중인 학생이라면 누구나 신청자격이 있습니다. 단, 수도권 외 지역 거주학생을 우선으로 해 수급자자녀, 차상위계층의 자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50%이하 세대의 자녀(4인 기준: 2,223,500원) 등 저소득층을 먼저 배려해 입주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2. 장수마을과는 어떤 관련이 있나요?

현재 장수마을에는 10개 이상의 빈집이 있습니다. 빈집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잘 느끼지 못할 수도 있지만, 빈집 가까이 사는 분들은 여러 가지로 불편합니다. 빈집으로 방치되어 있다보니 외부인이 들어와 그냥 지낼 수도 있기에 불안합니다. 또한 사람이 살지 않고 관리가 되지 않다보니 더 많이 노후되어 무너질 위험도 있습니다. 이러한 빈집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개보수를 통해 장수마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을기업 "동네목수"에서는 이러한 빈집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집주인, 성북구청과 의논하고 있는 중입니다.

빈집을 활용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현재는 마을카페를 만드는 것을 논의하고 있고, 이외에도 마을공방, 공부방, 주민사랑방 등 활용방법은 다양합니다. 서울시가 발표한 대학생 임대주택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장수마을은 바로 옆에 한성대학교가 있고, 인근에 여러 대학이 있기 때문에 주택을 개보수해 하숙집이나 대학생 임대주택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1) 서울시 보도자료(2011. 8. 10), "서울시, 내년부터 매년 대학생 주택 900개 방 이상 공급"



요모조모 따져보기(1) - 빈집활용방안 : 서울시 대학생 주택 확대 공급방안

앞서 소개한 6가지 방법 중 장수마을에 적용 가능한 방법은 ④노후 공가 개보수 후 대학생 임대주택으로 운영하는 방법입니다. 노후 공가는 재개발예정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거나 장기간 사업이 추진되지 않는 구역 내 노후 공가와 일반주거지역 가운데 대학생 임대주택으로 활용 가능한 노후 공가를 대상으로 합니다. 해당 자치구에서 대상주택을 선정하고, 사회적 기업이 주사업자로 참여해 지붕교체, 내부수리 등의 공정을 담당하며, 시에서 호당 5백만원 이내의 수선비를 지원하고 나머지 비용은 집주인이 부담해 공사가 진행됩니다. 임대료는 월 20만원 수준으로 책정되며 집주인은 임대수입을 확보하고 입주대학생들은 시중보다 절반 이상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게 됩니다.

성동구에서는 이미 반값 하숙집 "해피하우스"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올해 5월 해피하우스 1호에 남자 대학생 9명이 입주한 것을 시작으로, 2-4호는 저소득층 가정이, 5호에는 여자 대학생 10명이 입주했습니다. 장수마을 이러한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습니다. 주택재개발예정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사업성이 낮아 앞으로도 사업이 추진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계속 늘어나고 있는 빈집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빈집을 활용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수마을 곳곳 벽화를 그렸던 한성대학교와의 인연이 앞으로 빈집 개보수를 통한 대학생 임대주택 활용으로 이어져 젊은 학생들이 거주하게 된다면 지금보다 좀 더 활기찬 기운을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요모조모 따져보기(2) - 이제 재개발 예정구역을 해제해야 합니다.

이제 재개발 예정구역을 해제해야 합니다.

며칠 전 서울시에서는 재개발 예정구역 해제를 신청한 31개 구역을 예정구역에서 해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성북구에서도 성북동, 정릉동 등 네 곳이 예정구역에서 해제되었지요. 장수마을은 아직 예정구역에서 해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외지 가옥주 비율이 높아 동의를 받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지요. 주민들 중에서도 개발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정구역 해제를 반대하는 분도 있습니다.

장수마을은 재개발 사업이 추진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장수마을보다 훨씬 개발여건이 좋다고 하는 주변 지역들도 재개발 추진이 중단되거나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근처 삼선3구역은 추진위원회가 있으나 계속 지지부진하고, 삼선6구역은 구역지정을 받아놓고도 중단된 상태입니다. 삼선5구역은 시공사를 선정하고도 수익성 악화로 시간을 끌면서 잡음이 많다고 해요.

재개발은 보통 기본계획 수립에서 착공까지 3-5년이 걸리고, 착공에서 입주까지도 2-3년이 더 걸리는 장기사업이에요. 주택경기가 좋을 때도 추진위원회 설립부터 입주까지 적어도 10년이 넘게 걸리는데, 우리 장수마을은 추진위원회조차 만들어진 적이 없어요. 추진위원회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도 없고, 거들떠보는 건설사도 한 군데도 없어요. 문제는 재개발 예정구역을 유지하고 있으면, 다른 공공지원 사업을 유치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장수마을에 골목길 정비나 도시가스 인입이 안 되는 이유는 재개발 예정구역으로 묶여있기 때문입니다. 추진가능성이 없는 재개발 예정구역 유지는 동네의 발전에 걸림돌일 뿐입니다. 이제는 주민들이 현명하게 판단을 해야 합니다. 연휴 기간 동안 가족들과 충분히 의견을 나누시고, 차후에 재개발 예정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을 모아나갔으면 합니다.



집수리 101

집수리 101

『집수리 101』, 101(원오우원)이란 ‘기초의’, ‘입문의’ 라는 뜻입니다.

현관문이나 대문이 문단속이 되질 않아 불안함을 느끼시지 않나요? 또는 고장 나서 문이 열리거나 잠기지 않아 고생한 적이 있지 않으시나요? 교체할 엄두가 나질 않아 불편함을 갖고 생활하지 마시고, 이번 달에는 보조키 설치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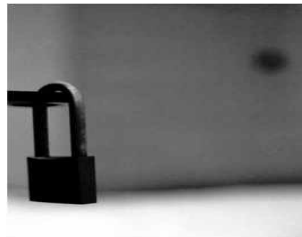
【 보조키 달기 편 】

☞ 보조키가 고장나면?



<이미지 출처: 한겨레>

도난의 불안감



시건 불량



대문 잠기지 않음

☞ 보조키를 설치하는 이유는?

- 1. 기존에 사용하는 보조키의 노후화로 작동 불량일 때
- 2. 낡은 시건 장치로 도난의 불안감이 느껴질 때

*Tip - 기계식 보조키의 종류

- 1. 편심키 (열쇠 구멍이 한쪽에 치우침)
- 2. 중심키 (열쇠 구멍이 중심에 있음)



☞ 어떤 순서로 고쳐야 할까요?



① 기존 보조키 해체

② 키심 삽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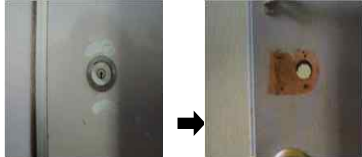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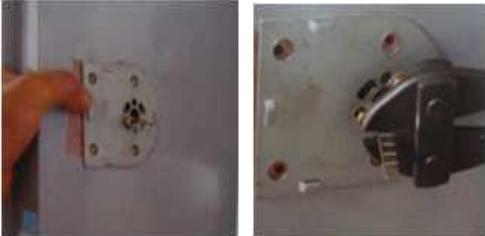



③ 몸통 고정

④ 걸림쇠 고정

⑤ 완료 / 사용 테스트

 **집수리 101**

☞ **각 순서별로 어떻게 고쳐야 할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출처: 「철천지의 30분 집수리」, 인터넷 블로그 사진 참고)

순서	내 용	세부 작업사항 / 유의 사항	사용공구
1	<p>기존 보조키 해체</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보조키 몸통 분리 2. 안쪽 부착판 분리 3. 기존 보조키의 해체  <p><기존 보조키> <해체 완료></p>	드릴
2	<p>키심 삽입</p>  <p>새 보조 키심 받듯이 삽입</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새 보조 키심 삽입 2. 받듯이 삽입 3. 바깥쪽에서 키심을 삽입 	-
3	<p>몸통 고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바깥쪽에서 키심을 삽입 2. 중심나사 조임 3. 1cm 제외하고 절단  <p><중심나사조임> <위치고정></p>	드릴, 기존 나사, 커터기
4	<p>걸림쇠 고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받이판과 위치 확인 2. 문틀 받이판 고정 3. 새 받이판 고정 	기존 나사, 드릴
5	<p>완료 / 사용 테스트</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새 받이판 설치 완료 2. 새 보조키 설치 완료 <p>* 작업완료 후 문을 여닫아서, 잘 잠귀지는지 테스트 실시</p>	-



이달의 퀴즈



숨은그림찾기
(총11개)

땅콩, 식빵,
조개, 포크,
식칼, 도끼
머리빗, 물개,
오이, 가오리,
스케이트

낚시로 물고기를 잡는 꿈은 경사스러운 일이 겹칠 운세라고 하네요. 올 가을 장수마을 주민들에게 경사스러운 일이 많았으면 합니다. ^^ 그림에서 옆에 적힌 것들을 찾아서 표시하신 후 이름과 연락처를 적어 슈퍼 옆 빨간 건의함에 넣어주세요. 정답을 맞춘 분들에게는 소정의 선물을 드려요.



소식지 참여방법

<장수마을 이야기>가

더 풍부한 소식지가 되도록 함께 해주세요!

1) [이달의 퀴즈] 등 다양하게 주민참여 코너에 함께 해주세요. 퀴즈 정답자에게는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2) 주민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이야기는 종이에 적으셔서 슈퍼 옆 건의함으로 넣어주세요. 번거로우시면 언제든지 전화로 이야기해 주셔도 되어요.

3) 장수마을에서 문제가 되는 곳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함께 고민을 나누며 바뀌어나가도록 해요. 당장 많은 변화는 아니더라도 조금씩 조금씩 바뀌면서 점점 더 살기 좋은 마을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소식지 <장수마을 이야기>에 담긴 내용이나 대안개발추진경과 등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우리동네 소식지 <장수마을 이야기>는 매달 초에 나옵니다. <장수마을 이야기>를 만들고 배포하는 과정은 늘 열려있습니다. 함께 하실 주민들, 언제나 환영입니다.

문의

박학룡 010-7178-6744

장수마을 마을기업 "동네목수" 747-6004

성북주거복지센터 922-5942

장수마을(삼선4구역) 블로그

<http://samsun4.tistory.com/>

대안개발연구모임 후원계좌

신한은행 110-258-295860 (예금주 박학룡)